

[8] 1990년 11월 4일(일요일)

‘여자다움’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환경과 교육 때문에 여성의 지능이 남성에 비해 훨씬 뒤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3일 이대 중강당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 제7차 학술발표회에서 교육개발원 연구원 조석희씨는 ‘여성 영재의 교육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성역할 행동에 관한 편견이 여성에

영재를 선발한 결과 고교생 2천26명 가운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62대 38, 중학생 2천1백23명은 61대 39, 국교생 1백56명은 73대 27의 비율로 전반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IQ150 이상 집단의 경우는 고교 여학생의 비율은 18.2%, 중학교 여학생은 18.6%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덜해야 한다는 것을 은근히 주입시켜 성취도가 뛰어난 여자 어린이들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자의 지능지수와 성취도가 남자보다 뒤진다고 탓만 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취동기와 자아개념, 독립심을 부모 스스로가 자녀에게 불어넣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씨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여성 지능지수 남성에 뒤진다”

여성학회 학술발표회서 조석희씨 연구발표

IQ150이상 18%뿐...성차별 환경 영향

게 끼치는 영향, 부모가 딸에게 자신감있는 여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조씨는 지능지수와 성적을 동시에 고려해 국교5학년 영재를 선발한 결과 총2백90명 가운데 여자 어린이는 38%에 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영재교육협회가 실시한 ‘영재아 실태조사’에서도 IQ120 이상이며, 학교 석차가 1·2등인

으로 실시된 물리 올림피아드 참가자로 선발된 67명의 학생 가운데 여학생은 9명으로 13.4%에 불과했다.

이러한 통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잠재력을 발휘하는 빈도가 훨씬 적고, 발휘한다 해도 분야가 매우 제한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한 김씨는 “가족구성원들이 여자어린이들에게 남자들보다 성취를

앞장서서 성공한 전문여성을 모델로 제시, 여성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전문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고정된 성역할 관념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을 허용하고 △자녀에게 ‘여성스러움’을 지나치게 요구·강조하지 말고 독립심·자립심·자신감·의사결정능력 등을 키워나가도록 북돋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